

신앙과 삶을 누리는 것

차례

생각을 위한 글 ①	당신의 일상이 아름답다
생가가을 위한 글 ②	하나님은 당신을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생각을 위한 글 ③	새롭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움을 느끼는 몇 가지 방법
성경공부	신앙과 삶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 주파수, 말씀과 기도 헤르츠(HZ)
그리스도인의 삶 ①	경건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②	신나는 교회생활
그리스도인의 향기	헌신적인 사랑
소박한 삶	작은 웃음에 담긴 거룩한 축복
문화 아카데미	너희가 문화를 아느냐

● 신앙과 삶 시리즈를 발간하며 ●

믿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살아가는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특히 인생의 젊은 날을 살아가는 그대 청년들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고민거리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자주 좌절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해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의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나고, 행복하고, 환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우리는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고민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권면하는 시간들.

이 좋은 시간들을 통하여 그대의 삶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젊은 날을 살아가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그대들의 영원한 친구 준석이가 뜨거운 가슴을 품고 쓰다.

생각을 위한 글 ①

당신의 일상이 아름답다

숲에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호흡하며 삽니다.
고개를 힘껏 뒤로 젖혀도 다 볼 수 없는
커다랗고 울창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
가냘픈 꽃대 위에 정갈하게 피어있는 작은 꽃까지形形色색의 식물들이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두가 ‘숲’이라는 한 단어에 담겨지듯이 놀라운 조화를 이룹니다.
거기에는 왕도 없고 쫄병도 없습니다.
덩치 큰 은행나무가 작은 제비꽃 보고 보잘것없다고 무시하지 않으며
제비꽃도 덩치만 큰 나무라고 큰 은행나무를 비웃지 않습니다.
이렇듯 자연은 자신의 삶에 가장 충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자신의 일상이 보잘 것 없으며, 조악하며, 무료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당신은 커다란 나무가 아닐는지 모르지만,
커다란 나무조차 담아낼 수 없는 커다란 아름다움을 가냘픈 꽃대 하나에 싣고 있는 제비꽃
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정원에 핀
그분이 직접 지으시고 이름 부르시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 당신의 일상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각을 위한 글 ②

하나님은 당신을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현재라는 시 공간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과거로부터 자유 함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해야 하는 줄 알지만,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과거 때문에 주저하다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현재라는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알지만,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과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 못했던 안타까움과 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현재라는 시간은 그렇게 흘러 또 하나의 아쉬운 과거로 사라져 버립니다.
‘나’에 대하여 쉽게 결론짓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한 바로 다음 순간 ‘나’라는 존재는 또 다른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여 이미 어제와 다른 곳에 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생겨났지만, 과거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직도 내적치유를 통해 오히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눈을 들어서 ‘나의 얼굴을 도우시

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저차원적인 모든 인간론의 굴레와 답답한 이성주의로부터 가을하늘 처럼 시원스런 창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언제나 출발선입니다.

생각을 위한 글 ③

새롭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움을 누리는 몇 가지 방법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 세상에 새것이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직장을 얻을 때 처음에는 기대하고 긴장되다가도 곧 일상이 되어 ‘새로운’이라는 수식어는 ‘따분한’ 내지는 ‘지겨운’ 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늘 해야만 하고 늘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새로움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해 아래 새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새로움’은 새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대하는 ‘새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옛것’일지라도 늘 새것만 찾는 사람은 결코 옛것의 새로움을, 그 풍요함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삶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곳곳에서 현재의 삶을 기뻐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보람을 찾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화석화된 이론이 아니라 실재이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움’이란 새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과 사람들을 기뻐하며 그것을 누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위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늘 그곳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신비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평생보아도 다 보지 못할 신비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8. 신앙과 삶을 누리는 것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행 3:19)

좋은 영화를 보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극적(dramatic)입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네 삶은 항상 극적인 순간들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영화가 아닙니다. 연극이 아닙니다. 영화나 연극에서 볼 수 있는 감동적이며, 극적인 순간이 있을 때도 있지만, 자고, 먹고, 사람 만나고, 티격태격 다투고, 별다른 의미 없어 보이는 뭐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들이 그대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그대가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예,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이제 나눠 봅시다.

■ 생각을 위한 나눔

1.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요즈음 사는 게 즐겁습니까?'
2. 최근에 가장 즐거움을 누린 순간은 언제입니까? 최근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본 영화는? 최근에 만난 좋은 사람은?

■ 말씀 묵상 및 적용

1. 그리스도인이 즐겁게 사는 것은 불경건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나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신나고 즐거운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짜릿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시 16:11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뭉게구름이 피어 오르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선물들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그분 앞에 가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그 선물을 주시고 싶으신 것

입니다. 짜증나고, 화나고, 시큰둥하고, 슬프고,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기분이 아니
요. 상큼하고, 환하고, 흥분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와 설레임이 밀려오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시 105:3

행 3:19

도움말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이원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산속에서 사시지 않으셨습
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에서 사셨습니다. 함께 사셨습니다. 늘 인상 쓰고 살지 않으셨습니
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면서 기분 좋게 사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가슴 아파 하
셨지만, 짜증을 내며 사시지는 않았다고요.

♣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I >

- 정직하게 행한다. · 공의로워야 한다. · 진실을 말한다.
-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 · 남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II >

- 비난하지 않는다.
- 악한 사람은 멸시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경한다.
- 약속은 꼭 지킨다. · 부당한 이자는 받지 않는다.
-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

2.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영역의 즐거움 - 가정, 일, 먹고 마시는 것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도 즐겁게 살 수 있
는가? 예, 죄를 짓지 않고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정, 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전 3:13

전 5:18-19

전 8:9

전 8:10

도움말

참 재미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도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바로 '즐거움', '하나님의 선물' 이라는 말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인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 ♣ 하나님은 세상에 아름다운 두 공동체를 허락 하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두 공동체의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3. 삶을 누리며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소유가 많아지면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가? 약간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의 풍부함이 궁극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5:10

- ♣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 1:3)

그렇다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①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기쁨도 예배의 기쁨과 바꿀 수 없습니다.

시 105:3

느 8:1-12

- ♣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며, 그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어 다른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께와 앞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

나눔시다

- 쏟아질 듯 빛나고 있는 밤하늘의 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 해질녘 서산에 걸쳐 있는 부드러운 자태의 태양을 본 적이 있습니까?
- 춤추듯 반짝이고 있는 강물의 작은 파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연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연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은 누리는 대상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시를 쓰십시오. 노래를 지으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시 19:1-6

- ♣ 자연이 선포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이다. 자연은 시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주님의 설교자들입니다.

시 8:1-9

찬송가 78장

-
- ♣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 받는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영히 지워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찬송가 40장

③ 열심히 일하십시오.

사역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였을 때, 마칠 때의 환희를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④ 좋은 취미를 가지십시오.

나눔시다

그대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과 어떻게 조화되고 있습니까?

- ♣ 신앙을 위해 세상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대가 어둑어둑한 세상 속에 빛이 되어 하나님의 세상을 밝히기를 고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취미생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운동, 음악, 미술, 여행, 바둑, 장기, 수집, 문학, 영화, 대화... 등. 취미생활을 즐길 때에는 몇 가지를 지키세요.

-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세요. 사람은요, 무엇을 하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어느 곳에 있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지배를 받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 '우선순위'를 지키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과 중복될 때에는 취미를 포기하십시오. 예를 들면, 의사나 간호사의 경우, 아주 급한 환자가 있는 데도 자신의 취미에 우선권을 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취미생활을 하기 위하여 예배를 멀리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일이죠. 자신의 취미를 위하여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예를 들면,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 가족과 함께 하는 것... 등
-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함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 주파수, 말씀과 기도 헤르츠(HZ)

"안녕하세요! 별밤지기 ○○○입니다." 로 시작하는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던 시간들이 생각 납니다. 늦은 밤, 보충수업을 마치고 부리나케 달려가서 심호흡할 시간도 없이 책가방을 내 던지고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곤 했었습니다. 주파수가 잘 맞지 않는 날에는 발을 동동이며 마루로, 건넌방으로 뛰어다니며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죠.

커피한잔을 움켜잡고, 흘러나오는 음악을 음미하다가 잔잔한 배경 속에 슬픈 사연이 소개될 때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슬퍼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음악과 아름다운 사연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녹음 단추를 꼭 눌러, 테이프에 보관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마지막 사연을 전해 듣고,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군요."라는 멘트가 진행 DJ의 입술을 떠날 때면 아쉬움으로 다음 시간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포항에서 군복무 하던 시절. 미미하고 격해지는 삶 속에서, 지쳐있는 나의 영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습관적인 교회 생활이었기에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인격이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난 후, 그분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나의 걸사람은 건장하고 나의 신분은 장교였지만, 나의 속사람은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너무나도 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나의 영은 하나님의 말을 할 줄 몰랐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초라해진 나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거듭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봤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늦게서야 저를 찾아 오셨나요?"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커피 한잔에 몸을 녹이고 있는데, 옛날 라디오에서 들었던 에세이 하나가 갑자기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느닷없이 왜 그 에세이가 생각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난 늘 너와 함께 있었단다."

학창시절 '별밤'을 들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파수를 맞추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본 적이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방황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질책대신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던 주님을 그때 또 한번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곁에 계셨고, 늘 나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야 음악을 들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에세이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 파수는 말씀과 기도 헤르츠(HZ)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1]

경건의 삶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더라도 깨끗한 손으로 정직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경건의 은혜를 보여줌으로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경건한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면, 그들이 절대 갖지 못한 만족과 기쁨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독교의 감수성이 이 사회 전반에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때 TV에 나오는 박카스 광고가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 어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가득담은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 뒤에서 대학생인 아들이 밀어주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월요 아버지는 매일 하시는 일인걸요” 너무나 애정이 넘치는 얼굴로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그 장면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두 사람이 진짜 부자지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그 사실에 더욱 감동을 받았고 ○○신문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박선치씨(강동구청소속 환경미화원) 그는 원래 시장에서 옷가게를 했었는데 가게가 잘못되는 바람에 10년 전부터 환경미화원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인 상호군이 고2때부터 빚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점점 더 빚나가기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는 용단을 내리고 삼남매를 불러놓고 사실은 자신이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일을 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사실 공무원이 아니란다. 아침마다 도로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야. 내가 지난 10년 동안 남들이 마다하는 그 일을 하면서 너희들을 키워왔는데 너희들이 이러면 되겠니? 그날 밤 온 식구가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빚나가던 상호군은 마음을 잡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만든 MBC애드컴은 삭막해진 이 사회에서 부자지간에 서로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부각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환경미화원과 그의 아들이 수레를 끌고 가면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가상인물은 실제인물에 비해 감동이 덜한 법이라고 판단한 제작팀은 서울시 각 구청에 대학생 자녀를 둔 환경미화원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넘어도 지원자가 없자 광고제작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박상호군이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박상호군은 MBC애드컴 관계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우리집

은 어느 가정보다 행복해요. 부모님의 부지런함이 언제나 저를 가르치고 단련시켰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땀 흘려 번 정직한 돈으로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천한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선치 부자는 비록 그런 일을 하며 살지라도 그 속에서 감동이 솟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도 어떤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을 걸어오며 밤낮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해도, 수입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진급이 늦어져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느라 비록 적은 소득밖에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밤낮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기쁜 삶을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면>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②

신나는 교회생활

어떤 사람은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날은 신이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가서 이것저것을 하면서 분주하게 하루 종일 지내면서도 별로 피곤해 하지 않고 밝은 얼굴로 보낸다. 깨끗한 옷으로 단정하게 차려 입고 마치 귀한 분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준비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말이 되면 또 어느새 일요일이 돌아왔는가 하면서 짜증스러워하기도 한다.

예배 시간이 다 되도록 꿈지럭거리다가 집을 나서서 이미 시작된 예배당에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와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텅 빈 자리에 앉아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성경책을 들고 오지도 않고 멍청하게 앉아서 찬송을 부를 때에는 다 죽어가는 것처럼 개미 소리 만하게 따라 부르고, 헌금하는 시간에는 주머니에서 부스럭거리면서 구겨진 돈을 꺼내서 언짢다는 듯이 헌금 주머니에 넣는다. 설교가 시작되면 영락없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설교가 끝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축도가 마치자마자 부리나케 교회문을 나서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가정 대표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이거나, 주의 사람들의 등쌀에 못 이겨 출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교회 출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비록 유명한 종교인이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에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이며 개인적으로 모르고 있었던 그는 자기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구속의 사실을 바로 깨닫고 그를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건물이 크든지 작든지 관계가 없고, 다만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울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면 우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들을 알고 믿을 때, 그에 대한 나의 태도는 결코 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가는 사람이 축쳐진 어깨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느릿느릿 가겠습니까? 시간이 늦을까봐 부리나케 달리고 서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신나는 교회 생활>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

헌신적인 사랑

사랑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옛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절대로 자기의 일은 생각지 않고, 자기의 일은 걱정도 하지 않고, 단지 이웃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번민하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활은 경탄할 만한 것이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천사들은 그의 선한 생활에 흠뻑 반해서 아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이들 천사의 하나가 다른 천사를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성자(聖者)이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저 사람 스스로 자신이 성자라는 사실을

모른다.

아! 저러한 인간은 이 세상에 드물다.

어디 저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우리들로 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하는지 들어보자꾸나. “

그래서 이들 천사들 중의 하나가 눈에 안 띄게 몰래 그 사람한테 가서 명료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의 생활이 말고 깨끗한 것을 알고 있는 터인데 어떠한 상을 주어야 좋을지 알고 싶다. 또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주기 바란다. 그대가 매일 보고 끊임없이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에게 훌륭한 신통력을 주어서 세상 사람들을 병고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대가 측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찍 죽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가?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해줄 수가 있다.

또 이세상 모든 사람들 -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 이 모두 그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가? 우리는 그 바람도 이루어 줄 수 있다.

무엇을 바라는가 말해보라.”

그러자 성자인 그 남자는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에게 보낸 고통이나 질병이나 고뇌와 요절 등을 그들이 벗어나게 하는 일은 역시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저는 무섭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나를 유혹해서 나의 귀중하고 유일한 사업 -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자기 마음속에 증대코자 하는 일 - 이 방해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천사들은 말했다.

“야아 이 사람은 참으로 성자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이다.”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남성이여 지혜롭고 현명하여라> 중에서

소박한 삶

작은 웃음에 담긴 거룩한 축복

아주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받는 재미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재미난 장난을 쳐 놓고 어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죽이고 웃는 웃음과도 같습니다. 킁킁킁, 킬킬킬킬, 꺅꺅꺅... 도란도란 구석에 몰려서 자기들끼리 즐거워서 웃어댑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누가 요구하는 사람도 없이 활짝 열려진 마음속에서 쏟아지는 그런 웃음입니다. 예전에는 커다란 웃음만을 쫓아 다녔더랬습니다. 적어도 삶의 행복이란 자아성취를 했을 때

진정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그 고지에 도달하였을 때 비로소 즐거움의 웃음이 ‘하하하’, ‘허허’, ‘떨떨떨’ 하고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러한 웃음은 여간해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어쩌다 내뱉는 웃음만큼 즐겁지도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만 공허해지고 허탈해질 뿐입니다. 또한 인기 있고 칭찬 받아 남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일들을 부여잡고 행복하다고 외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보여주고 싶은 큰 웃음이 가슴으로부터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슴이 좁아서 그런가 나오다가 걸린 것 같습니다.

역시 가슴의 입구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오는 작은 웃음은 너무도 솔솔 잘 비어져 나오고, 작게 나오지만 쉬지 않기에 양도 많습니다. 또 웃은 후에는 진정한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맡으며 출근하는 발걸음에 콧노래가 흥겹습니다. ㅎㅎㅎ...반가운 지체를 만났을 때, 어쩔 그렇게도 반가운지 서로 손 맞잡고 깡충깡충 뛰면서, 푸하하하, 깔깔깔...

기도가 너무도 필요했던 날, 한 지체가 내 마음의 기도제목을 꼭 짚어 중보기도 해주었을 때 감사의 웃음이 배어져 나옵니다. gm-흠.

주일날 성경공부 시간에 마주한 김밥. 일주일을 기다린 김밥 맛이 입안으로 퍼져 나갈 때, 내가 다시 그리던 성경공부 시간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안도의 웃음입니다. 히히히...

교회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들린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 한 입씩 베어 먹는 차가운 아이스크림에 얼마나 작은 웃음들이 녹아내리는지 모릅니다.

깔깔깔...

혹시나 싶어 테이블위에 살짝 올려놓은 교회신문과 청년부 주보를 회사 동료가 열심히 읽는 모습을 보았을 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팡팡팡 부풀어 오릅니다. 이-야호!

회사에서 갖은 회식 술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술잔을 치워주는 동료의 배려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헤헤헤...

알고 보니 웃음은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삶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웃음거리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웃음이었고 항상 자주자주 느낄 수 있는 위대한 행복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웃음들을 내 마음에 모아 담았을 때 나의 삶은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 언제나 늘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이웃에게 사랑과 함께 전해지길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참 생명의 밝은 빛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커다란 웃음만 쫓아다니느라 지쳐 나동그라진 영혼들에게 아주 쪼그만 그러나 그 속에 큰 행복이 압축된 웃음을 되찾아 주시는 예수님의 행복 행진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분량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기지 못할 힘든 길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써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묻혀서 잃었던 작은 소망과 웃음에 큰 행복과 거룩한 축복을 담아 주십니다. 늘 웃으면서 즐거움에 깔깔거리며 삶을 나의 소중한 행복으로 받겠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더 나은 길로 가려나 보다 감사해 하고, 사람과 헤어지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나 보다 기대하고, 오늘 어려움을 겪으면 내 일은 기쁜 일이 있겠구나, 기쁜 일을 만나면 겸손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평범하고 소박해 보일지라도 진정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때에 맞춰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내가 살지만 사용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도구가 도구답게 쓰여졌을 때 진정한 가치

를 갖게 되는 것일 테니까요.

문화 아카데미

너희가 문화를 아느냐

신앙과 삶을 누린다는 것!

이것을 말할 때 우리는 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패역해 지는데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며 어떤 것이 죄 된 문화인가?

문화란?

문화의 목적 : 삶의 질을 높이는 것

- 문화를 통해 정서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경험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

문화의 정의

· Three ,i로 설명

- I, identity, identify → 나의 identity를 밝히는 것

· 다니엘 벨의 정의

- 자기의 identity를 깨닫고 개발하고 성장시켜 유지시키는 것
- 문화는 자기실현(자기만족)이 원칙이며 목적

기독교 문화

기독교 문화와 문화 공부의 필요성

기독교 문화의 대표적인 예 : 예배

예배란(김세운 박사님의 정의)

-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의 fellowship, communication, sharing
-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공급 받을 수 있으며 그만큼 삶이 풍요로워 질 수 있다. 따라서 과연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는 너무나 중요하다.
- 한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영적 예배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구별하여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 한편, 우리의 삶 전체는 어떤 식으로든지 문화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따라서 삶은 곧 문화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기독 청년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문화에 대하여 무조건 배척하고 세상에서 고립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세상의 넘쳐 나는 문화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질을 더 높여 줄 문화를 선택,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

제가 끊어진 세상에서 너무나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는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역할이 우리 기독 청년들의 역할인 것이다.

기독교 문화의 특징-은혜

세상 문화의 특징-매매 원칙, 조건부, 경제성의 원리

-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조건 없이,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은혜의 원리를 그 특징으로 한다. 반면에 세상 문화는 대가를 바라고 주는 매매 원칙이 지배한다. 이런 가운데 문화도 상품화될 수밖에 없고, 인간에 대해서도 인간 자체로서 존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사상의 문화는 소비 중심, 쾌락 지향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독교 문화의 위기

교회의 제도화, 관습화,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신성화 작업, 교회행사들의 프로그램화

→참된 예배가 사라짐, 하나님은 사라지고 교회만 남음.

-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사랑을 그 근본원리로 하는 것이며, 진정한 사랑은 규격화 시킬 수 없는 것이며 형식화 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역사 하는 가운데 사랑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와 크리스천은 엄청난 파워와 역동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기독교 문화의 범위

- 크리스천의 오해 : 최소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거나 배경음악이 찬송가 여야 기독교 문화이다.
-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들을 살펴보면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흔히 들던 이야기 거리들을 사용하시고 있다. 다시 말해, 비유의 내용만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기독교적이 아닌 소재와 사건들을 사용하시고 계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변화 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거기에 초막을 짓고 살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하산할 것을 이야기 하신다. 즉,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 그러므로, 기독교 문화의 범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한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바른 삶인 것이다.

<강사 : 문영환 목사님>

